

“1년에 단 한차례 장갑 지급... ‘맨손진압’ 할 판”

전남지역 소방인력·장비 태부족... 화재진압 어떻게 하나

근무자 16명이 1개군 관할...대형 화재뎀 무방비

유독가스 발생시 ‘배연차량’ 오는데만 30분 소요

“신고 받고 신속히 출동한다 뭐합니까.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데...”

지난 28일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화재장비와 소방인력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화재 당시 배연차량 등 구조장비와 더 많은 소방서가 투입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각 소방서에 소방장비와 소방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선 장비·인력확충이 시급하지만 각 소방서는 예산이 부족해 노후된 장비조차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SNS상에선 화재진압 필수 장비인 소방 안전장갑이 찢어져 사용하지 못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지 소방관의 낯두리가 나돌 정도다.

▲소방장비·인력 태부족...화 키웠다= 2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담양소방서는 총 166명의 인력으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등 3개 군(郡)을 맡고 있지만, 내근 직(20명)을 제외하면 3교대로 3개 군에 나누어 근무하게 돼 16명 가량이 1개군 전체를 맡게 된다.

실제 지난 28일 장성군 삼계면 요양병원

에서 화재 발생 당시 가장 먼저 출동했던 삼계 119 센터에는 5명 만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 도착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출을 ‘골드타임’안에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1개의 소방서가 3개 군을 관할하고 있어, 대형화재 발생시 초기에 상황을 장악하고 인력 투입과 화재진압 등을 지휘해야할 소방서장이 골드타임을 훨씬 지난 뒤 현장에 도착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력 부족과 함께 부실한 장비도 제2의 화재 참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요양병원 화재 참사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소방 장비 차량으로 알려진 ‘배연 차량’은 불이 난 요양병원에서 37km나 떨어진 담양소방서에만 보유하고 있어 활용조차 되지 못했다. 담양에 있던 배연차량을 현장에 보내는 데만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비로 진압장갑 사는 소방공무원들 =현지 소방관이 최근 화재진압 때 필요한 화재진압장갑을 사비로 사서 쓴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현지 소방관이라고 밝힌 ‘아장프로×××’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화재진압장갑 6개월 쓰면 너털너털해지는 데 현재 3년째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구조용으로 1년에 두 개씩 사비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화가 난다”며 분노를 표하면서도 일부는 이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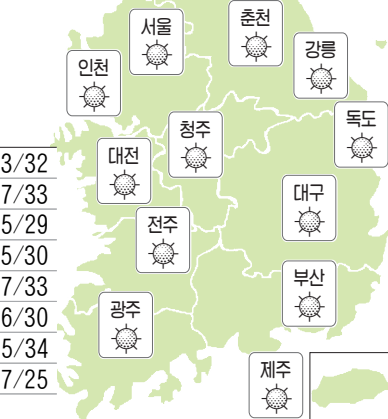
시 소방안전본부에 지난해 구입한 화재진압장갑은 모두 33개(353만 원). 시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차 수는 모두 1115명으로 이중 화재진압대원 수가 531명인 점을 감안하면, 일 년에 화재진압장갑을 한 개도 못 받는 진압대원들이 부지기 수라는 것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몰림 06:31
해질 19:40 달림 20:51

출근길 ‘안개 주의’

맑고 화사 없었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7/34	보성	맑음	13/32
목포	맑음	17/29	순천	맑음	17/33
여수	맑음	19/27	영광	맑음	15/29
나주	맑음	13/32	진도	맑음	15/30
완도	맑음	16/30	전주	맑음	17/33
구례	맑음	14/35	군산	맑음	16/30
강진	맑음	14/31	남원	맑음	15/34
해남	맑음	14/32	흑산도	맑음	17/25
장성	맑음	14/32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남	0.5	남동~남	0.5
남해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해	남동~남서	0.5	남동~남	0.5
서부	남동~남서	0.5~1.5	남동~남	0.5~1.5

출발

목적	출발	
	시각	날씨
목포	03:15	08:26
	15:09	20:25
여수	09:55	03:52
	22:25	15:53

생활지수

식중독	69
운동	50
빨래	90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31(토)	☀	18/34
6/1(일)	☀	18/33
2(월)	☁	18/27
3(화)	☁	18/24
4(수)	☁	18/26
5(목)	☀	18/28
6(금)	☀	17/28

謹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성 화재참사 합동분향소 마련 29일 장성 효사랑 요양원 화재로 숨진 고인들의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장성 흥길동 체육관에 분향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유병언 ‘오리무중’... 뒷북치는 김·경

순천 발견된 5일째 잠잠... 밀항설·지리산 도피설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로 파악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김·경이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며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얼마나 ‘꼭꼭’ 숨었는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는다”는 푸념도 들려온다. 김·경의 수사·정보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25일 순천시 서면 송치유계소 인근 별장에서 유씨 흔적을 찾은 뒤 5일째 순천 인근 지역을 이질 뒤지며 수색하고 있지만 소재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구속된 유씨 측근 A씨가 지인에게 빌려 유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쏘나타 차량을 지난 24일 순천 톨게이트 인근 주유소 CCTV에서 확인한 이후 이날 오후 6시40분께 구례 방면 국도로 이동중인 사실만 확인, 인근 CCTV 30여개를 분석하며 차량을 쫓고 있다. 구례를 거쳐 지리산 방면으로 빠져 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전남 경찰은 지난 23일 동부군 6개 경찰서 1500명을 비롯, 28일에는 2300명의 병력을 쏟아부어 산장, 별장, 숙박업소 등 신 가능성이 높은 4229개소를 선정, 송치유계 주변 계곡과 주요 길목 검문 검색에 나서고 있다. 경찰의 검문이 강화된 만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 정밀 수색에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사막에서 모래 찾듯’이라는 하소연이 경찰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다. 하루 30건씩의 제보도 꾸준히 있지만 현재까지 신뢰성 있는 제보는 없는 실정이다.

경찰의 ‘단독 플레이’와 허술한 검거 작전으로 유씨가 은신해 있던 순천 별장에서의 검거가 실패로 돌아간 뒤 수사력 부재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때 군인 제보로 성남에서 붙잡혔다는 소식이 나돌기도 했지만 한 달 넘도록 유씨 검거에 실패하면서 근거 없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대구에서 장남 대군세 출몰, 밀항 가능성, 지리산 잠적설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가 하면, 유씨가 머물렀던 장소 주변 상가가 문을 닫자 유씨가 숨어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경찰이 수색하는 해프닝도 연출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정부, ‘세월호’ 수색여행 중지 조치 해제 검토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졌던 수색여행 중지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또 투자와 건전한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필요하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경기 보완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일상으로서의 복귀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을 담보로 한 수색여행 중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수색여행은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6월중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색여행 재개에 앞서 안전 강화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재난법은 국가 재난대응 설계도에 해당하는 기본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대응체계의 변화를 담았다.

개정안은 또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현명숙 이사, 유경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교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추천회원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재혼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기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클럽) (063) 275-7766

여성가족부 인정

2014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4년 6월 16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4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족)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처리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징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 (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재적격리함.)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8 교학처 (062)605-1112, 1063